

한국판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척도(DAS-C)의 타당화 연구

이 정 아

정 현 희[†]

계명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기 우울과 관련된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척도(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DAS-C)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D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763명(남 398명, 여 365명)이었다. 한국판 DAS-C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자기-비판적 완벽주의(Self-Critical Perfectionism)와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의 2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DAS-C의 전체척도와 하위척도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관련 척도들과 양호한 상관을 보였으며,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 시간경과에 따른 안정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판 DAS-C의 전체척도와 하위척도가 성별 및 학년, 우울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년별로는 자기-비판적 완벽주의 하위척도에서 6학년이 4학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한국판 DAS-C는 전체척도와 하위척도 모두에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비판적 완벽주의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역기능적 태도, 인지적 취약성, 아동기 우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현희, 계명대학교,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번지
E-mail : hhchung@kmu.ac.kr

많은 연구자들이 우울증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근거한 치료와 예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우울증에 관한 Beck의 인지이론은 가장 큰 관심을 받아왔다. Beck의 인지이론(Beck, 1967, 1976)은 한 요인이 다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이르게 되며, 이 요인들이 우울에 기여하는 것이라 보는 소인-스트레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에 기초한다. 이 모델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도식(schemata)이라 할 수 있다. Beck(1976)에 따르면, 도식은 개인이 주변자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극의 의미를 해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름대로 체계화하는 인지적인 틀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식은 개인의 인지적 조직화가 비교적 지속되는 특성을 가진 지식의 형태로 저장되며, 개인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활성화된다. Beck(1976)은 우울한 사람들은 사고내용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방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우울에 취약한 우울 유발 도식(depressogenic schemata)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Weissman과 Beck(1978)은 우울 유발 도식을 부정적 생활사건에 의해 활성화되는 무력감과 불만족의 주제를 반영하는 부적응적인 자기도식으로 개념화하고, 이것을 역기능적 태도(dysfunctional attitude)라 불렀다. 이는 내용 면에서 완벽주의적, 절대주의적, 당위적, 이상주의적이고 융통성 없는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실의 삶 속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Beck의 인지이론에서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된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본다(Beck, 1976).

우울증에 관한 Beck의 이론이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지지를 받아온 데 비해, 아동에게 적용된 연구는 많지 않다(Abela & Skitch, 2007; Abela & Sullivan, 2003; D'Alessandro & Burton, 2006). 특히 Beck의 인지이론(1967, 1976)에 근거하여 아동의 우울에서도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아동의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를 들고 있다(Jacobs, Reinecke, Gollan, & Kane, 2008; Lakdawalla, Hankin, & Mermelstein, 2007).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이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역기능적 태도척도를 개발하게 되었다(Abela & Skitch, 2007; Abela & Sullivan, 2003; D'Alessandro & Burton, 2006).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척도를 개발하게 된 주된 배경에는 성인용 역기능적 태도척도(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DAS)가 아동의 인지능력을 넘어서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사용하기 위해 단지 언어를 단순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Garber(1992)는 성인용 도구를 아동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단순하게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언어적, 인지적 요구 조건을 모두 다 고려한 발달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질문의 의미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고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아동들이 구체적 조작기가 끝나는 11-12세경부터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의 사고를 획득하기 시작한다고 본다(Piaget, 1967).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들은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재적인 사고를 통해 논리적으로 조

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면 아동들은 실제적이며 관찰 가능한 대상에 대한 조작의 한계에서 벗어나 가설적이며 명제적인 사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송명자, 2006). 최근 들어 이러한 아동들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Abela & Skitch, 2007; Abela & Sullivan, 2003; D'Alessandro & Burton, 2006).

한편, Beck(1983, 1987)은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기제를 구체화시킨 특수 상호작용 모델(specific interaction model)을 주장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사람의 역기능적 신념을 사회적 의존성(sociotropy)과 자율성(autonomy)의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취약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사회적 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애정을 얻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타인을 즐겁게 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게 되는 반면, 자율성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독립성과 성취감을 얻으려 하고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일과 성취를 중요시하며 혼자만의 활동을 좋아한다. 따라서 사회적 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들에 의해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율성의 욕구가 높은 사람은 독립성과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위협하는 생활사건에 의해 우울해지기 쉽다(Beck, 1987).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Beck(1983)의 특수 상호작용 모델을 경험적으로 지지해 주었다(권석만, 1994; 이주영, 김지혜, 2000, Cane, Olinger, Gotlib, & Kuiper, 1986; Oliver &

Baumgart, 1985; Rude & Burnham, 1993). 또한, 역기능적 태도를 단일 요소로 평가할 때보다 두 가지 차원으로 평가할 때 Beck의 취약성-스트레스 요소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Blaney & Kutcher, 1991; Hammen, Ellicott, Gitlin, & Jamison, 1989; Robins, 1990). 이러한 결과들은 Beck의 이론을 아동에게 적용하는 연구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역기능적 태도의 요인구조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Abela 등(2003)과 D'Alessandro 등(2006)의 연구에서는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척도가 단일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McWhinnie와 Abela, Knauper(2009)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요인구조를 두 차원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두 차원의 내용도 성인용 역기능적 태도척도에서는 사회적 의존성과 자율성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아동용에서는 자기-비판적 완벽주의와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의 두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척도가 어떠한 요인구조를 갖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이에 대한 추가의 탐색과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기능적 태도척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권석만, 1994; 이민규, 이민수, 2002; 이주영, 김지혜, 2000). 반면,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에 관한 척도의 개발이나 타당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동용으로 개발되거나 타당화된 척도로는 배주미(2000)의 연구에서 Leitenberg, Yost와 Carroll-Wilson(1986)이 개발한 아동용 부정적 인지 오류 척도(Children's Negative Cognitive Error

Questionnaire: CNCEQ)가 번안되어 사용되었다.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2002)은 Schniering과 Rapee(2001)가 개발한 아동용 자동적 사고 척도(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CATS)를 타당화하였고, 이주연, 정현희(2004)는 Kaslow, Stark, Printz와 Tsai(1992)가 개발한 아동용 인지 삼제척도(Cognitive Triad Inventory for Children: CTI-C)를 번안하여 타당화 하였다.

외국에서 아동의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는 D'Alessandro 등(2006)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22문항의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Abela 등(2003)이 타당화한 19문항의 Children's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이 있다. 또한, Abela 등(2007)의 연구에서도 Weissman 등(1978)의 Dysfunctional Attitude Scale을 아동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Beck의 인지이론에서 말하는 인지적 취약성으로서의 역기능적 태도가 아동의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경험적 지지를 제공하였지만, McWhinnie 등(2009)의 연구에서처럼 성인과 다른 아동의 역기능적 태도에 대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척도는 아동기 우울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역기능적 태도척도에 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Alessandro 등(2006)에 의해 개발된 DAS-C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봄으로써 이 척도가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Nelson-Hoeksema, Girgus, Seligman(1992)의 연구에서 우

울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취약성은 후기 아동기나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한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판 DAS-C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는 기존 검사들과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별, 학년, 우울수준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척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7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

항목	구분	N	%
성별	남	398	52.2
	여	365	47.8
학년	4학년	236	30.9
	5학년	274	35.9
	6학년	253	33.2
전체		763	100.0

측정도구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 척도(DAS-C)는 D'Alessandro 등(2006)이 제작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DAS-C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 문항으로 성인용 역기능적 태도척도(DAS)의 100문항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예비문항들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 쓰고,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들을 제거하면서 40문항을 남겼다. 남은 40문항에 대해 상관관계를 구하고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22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남겨진 22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단일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DAS-C의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D'Alessandro 등(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DAS-C의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으며,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우울 척도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와 Beck(1977)이 개발하고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한 아동용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만 8-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척도는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아동은 0-2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54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높게 평가된다.

CDI에 관한 대규모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80대의 내적합치도를 보고하고 있으며, CDI는 비록 진단적 측정을 위하여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우울 증후의 심각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곽금주, 2002). 한국판 CDI의 내적합치도는 .82이며, 반분신뢰도는 .71로서 비교적 신뢰도가 양호하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는 .86이었다.

아동 불안 검사

아동 불안 검사(Reynold's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는 Casteneda, McCannless와 Palermo가 1956년에 만든 검사를 Reynolds와 Richmond(1978)가 개정한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 만 6세-19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검사는 모두 3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아동임을 나타낸다. Reynolds, Anderson과 Bartell(1985)은 .88의 내적합치도를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아동용 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개발한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관련 스트레스, 주변 환경관련 스트레스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현 등(1995)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는 .92이었다.

연구절차

척도번안

한국판 DAS-C의 구성을 위해 D'Alessandro 등(2006)이 개발한 DAS-C를 영어를 전공한 한국인과 한국어에 능통한 캐나다인이 한국어로 1차 번안하였다. 이를 영문학 박사가 역번역(back translation)하여 원척도와 비교한 후, 수정·보완하여 척도번안 작업을 마쳤다.

예비조사

번안된 DAS-C 문항들 중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부적절한 문장표현은 없는지, 또 실시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4학년 1개 학급, 5학년 1개 학급에서 각각 20명씩 표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이 아동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문항들은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본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된 한국판 DAS-C를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 798명에게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DAS-C와 더불어 스트레스 척도, 우울 척도, 불안 척도가 실시되었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재검사는 본 조사와 3주의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본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 5, 6학년 798명의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35부를 제외한 763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판 DAS-C의 구성요인과 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판 DAS-C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성별, 학년, 우울수준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척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DAS-C점수에 대한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고, 학년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판 DAS-C의 22개 문항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추출과 varimax에 의한 회전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 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4개 추출되었으나, Eigenvalue의 하락률(요인 3, 4의 Eigenvalue는 1.2 이하)과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할 때 2요인(Eigenvalue 6.3과 2.5)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남은 13문항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고, promax에 의

표 2. DAS-C 문항과 요인부하량

요인 1: 자기-비판적 완벽주의(SCP)	요인 부하량	요인 2: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PSP)	요인 부하량
7.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화가 난다.	.58	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좋은 말을 할 때만 기분이 좋다.	.57
8.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보라는 뜻이다.	.68	19.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해야 한다.	.75
9. 실수할 때마다 나에게서는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난다.	.72	20.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	.76
11. 만약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74	21. 나는 항상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77
12. 내가 한번 실패한다면, 앞으로도 항상 실패할 것이다.	.82	2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70
13.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72		
14.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할 필요도 없다.	.75		
15. 실수를 하면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61		

주. SCP=Self-Critical Perfectionism, PSP=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DAS-C=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한 회전을 실시하였다. 두 요인은 총 설명량의 52.27%를 설명하였고, 패턴행렬의 점검 결과 두 요인에서 모든 문항의 부하량이 .5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문항의 부하량이 N=100에 대해 최소 .51과 같거나 이보다 커야 한다는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Stevens, 2002). 분석을 통해 나타난 첫 번째 요인은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보라는 뜻이다’, ‘실수할 때마다 나에게서는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난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비판적 완벽주의(Self-Critical Perfectionism)를 반영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좋은 말을 할 때만 기분이 좋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를 반영하였다. 이 두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과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수렴타당도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DAS-C

표 3. DAS-C의 하위척도와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준거척도	SCP	PSP	DAS-C
우울	.65***	.19***	.55***
불안	.61***	.26***	.56***
스트레스	.81***	.75***	.58***

주. SCP=Self-Critical Perfectionism, PSP=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DAS-C=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 $p < .001$.

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간의 상관을 구함으로써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DAS-C의 전체척도와 모든 하위척도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DAS-C의 점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DAS-C의 하위척도 중 SCP와 우울 간의 상관은 .65로 비교적 높은 반면, PSP와 우울 간의 상관은 .19, 불안과의 상관은 .26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스트레스 척도의 경우에는 SCP와의 상관이 .81, PSP와의 상관이 .75로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다.

신뢰도

내적합치도

한국판 DAS-C의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한국판 DAS-C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3이었으며, 하위척도 중 자기-비판적 완벽주의(SCP)는 .83,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PSP)는 .78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한국판 DAS-C의 시간적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64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3주 간격의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판 DAS-C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척도가 .79, SCP가 .79, PSP가 .7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

성별에 따른 점수의 차이

성별에 따른 한국판 DAS-C와 하위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한국판 DAS-C 전체척도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t=0.16, p < .87$), 각 하위척도인 SCP($t=-0.77, p < .44$)와 PSP($t=-0.28, p < .78$)의 점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점수의 차이

학년에 따른 한국판 DAS-C와 하위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판 DAS-C 전체척도($F=6.38, p < .002$)와 SCP 하위척도($F=7.01,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학년과 6학년 간의

표 4.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의 차이검증

하위척도	성별	N	M	SD	df	t	p
SCP	남	398	10.63	8.20	761	0.16	.87
	여	365	10.53	7.73			
	전체	763	10.58	7.97			
PSP	남	398	14.71	6.42	756	-0.77	.44
	여	365	15.04	5.42			
	전체	763	14.87	5.96			
DAS-C	남	398	25.34	12.01	761	-0.28	.78
	여	365	25.58	10.95			
	전체	763	25.45	11.50			

주. SCP=Self-Critical Perfectionism, PSP=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DAS-C=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표 5. 학년에 따른 평균점수의 차이검증

하위척도	학년	N	M	SD	F	p	Scheffé
SCP	4	236	9.46	7.96	7.01***	.001	6>4
	5	274	10.20	8.31			
	6	253	12.04	7.42			
PSP	4	236	14.34	6.48	1.85	.158	
	5	274	14.86	6.12			
	6	253	15.38	5.22			
DAS-C	4	236	23.80	11.36	6.38**	.002	6>4
	5	274	25.06	12.54			
	6	253	27.42	10.15			

주. SCP=Self-Critical Perfectionism, PSP=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DAS-C=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 $p < .01$. *** $p < .001$.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비판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울 수준에 따른 점수의 차이

아동집단의 경우에도 성인과 같이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증의 유발과 유지에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CDI 점수로

표 6. 우울 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평균점수의 차이검증

하위척도	우울구분	N	M	SD	df	t	p
SCP	비우울 집단	628	8.55	6.24	167	-15.08***	.000
	우울 집단	135	20.04	8.36			
PSP	비우울 집단	628	14.50	6.03	761	-3.76***	.000
	우울 집단	135	16.61	5.30			
DAS-C	비우울 집단	628	23.04	9.93	177	-12.52***	.000
	우울 집단	135	36.65	11.75			

주. SCP=Self-Critical Perfectionism, PSP=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DAS-C=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 $p < .001$.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으로 나눈 후, 한국판 DAS-C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t 검증을 하였다. 두 집단을 나누는 CDI 절단점은 아동기 우울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우울한 아동을 변별하는 절단점으로 CDI점수 19점 이상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Gotlib & Hammen, 1992; Kendall, Stark, & Adam, 1990; Leitenberg, Yost, & Carroll-Wilson, 1986; Jordan & Cole, 1996).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이 각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t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판 DAS-C 전체척도($t = -12.52, p < .000$)와 각 하위척도인 SCP($t = -15.08, p < .000$), PSP($t = -3.76, p < .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판 DAS-C 전체척도와 하위척도 모두에서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우울 집단의 아동들이 비우울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역기능적 태도가 더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D'Alessandro 등(2006)이 개발한 DAS-C를 우리말로 번안한 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이 척도가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재학 중인 남녀 학생 76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결과들을 선행연구의 결과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DAS-C 문항은 13개 문항의 2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척도가 단일 요인으로 제작된 것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자기-비판적 완벽주의(SCP)와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PSP)의 2요인의 다차원적 요인구조를 보고한 Dunkley, Zuroff와 Blankstein(2003), McWhinnie 등(2009)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PSP는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설정, 성취에 대한 염려로 특징지어진 반면, SCP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다른 사람의 비판과 기대에 대한 지나

친 염려로 특징지어졌다. 또한, PSP가 SCP에 비해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이 낮게 나타났는데, 예컨대 SCP는 우울과 .65의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PSP는 .20의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판 DAS-C의 하위척도 중 SCP는 불안, 스트레스 척도와 .61에서 .81까지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PSP와의 상관은 .19에서 .7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계수는 D'Alessandro 등(2006)과 McWhinnie 등(2009)의 연구에서 보고된 상관계수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문항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긴 의미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서구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McWhinnie 등(200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자기-비판적 완벽주의(SCP) 요인의 문항들은 대인관계와 성취의 주제를 둘 다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성취와 대인관계 사건 둘 다 아동의 자기-비판 인지요인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Abela와 Taylor(200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우울을 유발하는 인지적 취약성인 자기-비판이 주로 성취와 관련된 부정적 사건과 관련된다는 Beck(1987)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McWhinnie 등(2009)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인지적 취약성이 자기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아동의 자기개념이 아직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취약성(specific vulnerability)'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역기능적 태도에 대해 발달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한국판 DAS-C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합치도 계수(Chronbach's α)가 .83으로 나타나 D'Alessandro 등(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Abela 등(2007)의 연구에서 보고한 Children's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CDAS)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84와, Abela 등(2003)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합치도 계수인 .92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79로 나타났는데, 이는 D'Alessandro 등(2006)의 연구에서 보고한 .80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DAS-C가 신뢰로운 도구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DAS-C의 점수가 성별 및 학년, 우울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학년에 따른 차이는 SCP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비판적 완벽주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14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태도척도와 성별,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별과는 상관이 높지 않은 반면 연령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Abela 등(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McWhinnie 등(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3학년과 7학년 모두에서 SCP와 다른 준거 척도들과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7학년에서 더 높은 상관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SCP의 높은 점수가 심리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보다 극단적인 완벽주의를 나타낸다는 McWhinnie 등(2009)의 주장을 고려할 때, 아동의 자기-비판적인 역기능적 태

도가 안정되기 전에 이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판 DAS-C의 하위척도와 전체척도 모두에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더 부정적인 도식(schemata)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Prieto, Cole과 Tageson(1992)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역기능적 태도와 부정적 사건의 상호작용이 우울의 증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한 Abela 등(2003)의 연구와 Lewinsohn, Joiner과 Rohde(200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 높은 수준의 역기능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우울장애 발병률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한 Alloy와 Abramson(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판 DAS-C는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비판적 완벽주의(SCP)와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PSP)의 2개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DAS-C 척도가 우리나라 아동의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도구임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지역의 4~6학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포함한 보다 대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역기능적 태도척도는 서구문화 속에서 확인된 역기능적 신념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척도의 문항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아동에게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임상집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이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면, 아동용 역기능적 태도척도는 아동의 우울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2002). 아동의 심리평가와 검사. 서울: 학지사.
- 권석만 (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3(1), 100-111.
- 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K-CAT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55-963.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송명자 (2006).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민규, 이민수 (2002).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K-DAS)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273-286.
- 이주영, 김지혜 (2000).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표준화 연구 및 임상적 적용. *한국심리학*

- 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이주연, 정현희 (2004). 한국판 아동용 인지삼
척도(CTI-C)의 신뢰도와 타당도. *인지행
동치료*, 4(1), 51-65.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
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0), 943-956.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불안의 측정. *신경
정신의학*, 29(3), 691-702.
- 한미현, 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
레스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Abela, J. R. Z., & Skitch, S. A. (2007).
Dysfunctional attitudes, self-esteem, and hassles: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children of affectively ill par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1127-1140.
- Abela, J. R. Z., & Sullivan, C. (2003). A test of
Beck's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y of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 384-404.
- Abela, J. R. Z., & Taylor, G. (2003). Specific
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actions in
schoolchildren: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408-418.
- Alloy, L. B., & Abramson, L. Y. (1999). The
Temple-Wisconsin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roject: Conceptual Background,
Design, and Method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3, 227-262.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In P. J. Clayton & J. E. Barn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265-290). New York:
Raven Press.
- Beck, A. T. (1987).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
5-37.
- Blaney, P., & Kutcher, G. S. (1991). Measures of
depressive dimensions: Are they interchangeab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 502-512.
- Cane, D. B., Olinger, L. J., Gotlib, I. H., &
Kuiper, N. A. (1986). Factor structure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in a student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therapy*, 42,
307-309.
- D'Alessandro, D. U., & Burton, K. D.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Tests of Beck's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y
of depression, of its causal mediation
component, and of developmental effec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 335-353.
- Dunkley, D.,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3).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d daily
affect: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234-252.
- Garber, J. (1992).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sychological
Inquiry*, 3, 235-240.
- Gotlib, I. H., & Hammen, C. L.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 Hammen, C., Ellicott, A., Gitlin, M., & Jamison, K. R. (1989). Sociotropy/autonomy and vulnerability to specific life events in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54-160.
- Jacobs, R. H., Reinecke, M. A., Gollan, J. K., & Kane, P. (2008). Empirical evidence of cognitive vulnerability for depress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gnitive science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759-782.
- Jordan, A., & Cole, D. A. (1996). Relation of depressive symptoms to the structure of self-knowledge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4), 530-540.
- Kaslow, N. J., Stark, K. D., Printz, B., & Tsai, S. L. (1992). Cognitive triad inventory for children: Development and relation to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1*(4), 339-347.
- Kendall, P. C., Stark, K. D., & Adam, T. (1990). Cognitive deficit or cognitive distortion in childhoo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255-270.
- Kovacs, M., &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J. G. Schulterbrant & A. Raskin (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pp. 1-25). New York: Raven Press.
- Lakdawalla, Z., Hankin, B. L., & Mermelstein, R. (2007). Cognitive theories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nceptual and quantitative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0*(1), 1-24.
- Leitenberg, H., Yost, L. W., & Carroll-Wilson, M. (1986). Negative cognitive errors in children: Questionnaire development, normative data, and comparisons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self-reported symptoms of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evaluation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528-536.
- Lewinsohn, P. M., Joiner, T. E. Jr., & Rohde, P. (2001). Evaluation of cognitive diathesis-stress models in predicting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203-215.
- McWhinnie, C. M., Abela, J. R. Z., & Knauper, B.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vised Children's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287-308.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05-422.
- Oliver, J. M., & Baumgart, E. P. (1985). The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 to depression in an unselected adult pop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 161-167.
- Piaget, J. (1967). *Six psychological studies*. New York: Random House.
- Prieto, S. L., Cole, D. A., & Tageron, C. W. (1992). Depressive self-schemas in clinic and nonclinic childr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521-534.

- Reynolds, W. M., & Anderson, G., & Bartell, N. (1985). Measuring depression in children: A multimethod assessment investig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3, 513-526.
-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A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 271-280.
- Robins, C. J. (1990). Congruence of personality and life events in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393-397.
- Rude, S. S., & Burnham, B. L. (1993). Do interpersonal and achievement vulnerabilities interact with congruent events to predict depression? Comparison of DEQ, SAS, DAS, and combined scal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531-548.
- Schniering, C. A., & Rapee, R. M.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 Stevens, J. P. (200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4th ed.). Mahwah, NJ: Erlbaum.
- Weissman, A. N., & Beck, A. T. (1978). *Developmental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Behavioral Therapy, Chicago, IL.
- 원고접수일 : 2010. 06.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7. 29.
최종게재결정일 : 2010. 08. 09.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Jung-A Lee

Hyunhee Chung

Keimyu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DAS-C), which was developed to measure cognitive vulnerability of depression in childhood.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763 children in the 4th, 5th, and 6th grade at 2 elementary schools in D City. Results showed that the Korean DAS-C is consisted of 2 factors: Self-Critical Perfectionism(SCP)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PSP).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Korean DAS-C and its subsca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uch variables as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orean DAS-C was found to be adequate, and the test-retest reliability(.79) indicated temporal stability of the scale. The current study explored whether the Korean DAS-C scores differed depending on children's gender, grade, and depression level. Results showed that 6th graders received a higher score on SCP than 4th graders. In addition, children in the depressed group showed higher scores on all DAS-C subscales, especially on the SCP, compared to those in the nondepressed group.

Key words : *dysfunctional attitude, cognitive vulnerability, child depression*